

日本的 經營의 形成基盤에 關한 史的 考察

——經營家族主義의 生成過程——

—The Historical Review On the Foundation of
Formation in the Japanese Management—

康 季 三*

《目 次》

- | | |
|----------------------------|-------------------------|
| I. 序論—問題의 設定— | Ⅲ. 勞使關係의 再編成과 經營家族主義 登場 |
| Ⅱ. 日本資本主義 確立과 勞使關係 | 1. 重工業의 擴大와 技能養成方法의 變化 |
| 1. 資本主義 確立과 그 特質 | 2. 直接的 管理體制에의 轉換 |
| 2. 重工業의 勃興과 勞動力構造의 變化 | 3. 露日戰爭後의 大爭論과 그 背景 |
| 3. 勞動市場의 流動化와 間接的 管理體制의 成立 | 4. 經營家族主義의 登場 |
| 4. 勞使關係觀의 轉換과 勞働者의 組織化 | Ⅳ. 結 論 |

I. 序論—問題의 設定—

最近 갑자기 日本企業의 經營과 勞使關係에 대한 諸外國으로 부터의 關心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石油危機後에도 後退할 줄 모르는 「日本企業의 高生産性」에 따른 國際競爭力의 向上이 요즈음과 같은 世界的 不況 속에서 注目된 것은 國益에 關聯된 當然之事라고 생각한다. 1955년에 財團法人인 日本 生産性本部가 設立되고서 부터 生産性運動이 本格的으로 展開되었다. 그로부터 불과 4반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飛躍해서 經濟大國으로 成長·發展하여 世界的 耳目을 끌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 低力은 과연 어디에 潛在하여 있는 것일까. OECD는 「日本的 經營이 勞使關係의 安定을 保證하여 이 安定性이 生産性を 促進하므로써 經濟成長에 貢獻하였다.」고 評價하고 있

* 清州師範大學 專任講師

2 經營學研究

다.¹⁾

日本을 비롯한 先進諸國에 있어서의 生産性向上이 經濟成長에 미친 寄與度를 살펴보면 表 <I-1>과 같다. 經濟成長率이 높은 先進國일수록 그 成長은 生産性向上에 絶對的으로 依存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pp}

〈表 I-1〉 經濟成長과 生産性向上의 寄與率 推移

(單位 %)

	韓國(63~76)	日本(57~71)	美國(48~69)	西獨(50~62)
GNP 成 長 率	9.3 (100)	8.8 (100)	4.0 (100)	6.3 (100)
勞 動 的 寄 與 率	3.5 (37)	1.9 (21)	1.3 (32)	1.4 (22)
資 本 的 寄 與 率	2.2 (24)	2.1 (24)	0.8 (20)	1.4 (22)
生産性 向上의 寄與率	3.6 (39)	4.9 (55)	1.9 (48)	3.5 (56)

(註): ()內는 構成比.

(資料): KDI.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1979. pp60~1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勞動과 資本에 依存하고 있어, 生産性向上의 問題는 企業次元을 초월한 國家的 課題임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OECD가 지적하였듯이 經濟成長에 寄與하였다는 日本의 經營이 歐美諸國과 比較할 때 매우 特色이 있다는 것은 今日 비교적 잘 알려진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條件下에서 어떻게 하여 生成되었는가 하는 點에 대해서는 많은 異論이 擡頭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本稿의 目的은 日本의 經營의 本質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經營家族主義가 어떠한 歷史的 條件下에서 生成되었는가를 분명히 解明하는데 있다. 이때 分析의 視角은 淸日戰爭前後부터 第1次大戰前까지의 期間에 걸쳐서 大企業 특히 重工業의 勞使關係의 歷史的 展開過程에서 究明하려고 意圖하고 있다. 그 理由는 첫째, 이 時期에 經營家族主義가 勞使關係의 動搖 속에서 生成되었다고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며, 둘째, 日本의 勞使關係는 大企業에 의하여 主導되어 왔으며, 특히 國家의 勞動政策의 展開는 大企業의 勞使關係와 緊密하게 關聯되어 왔기 때문이다.

II. 日本資本主義 確立과 勞使關係

1. 資本主義確立과 그 特質

1883(明治 16)년에 操業을 開始한 大阪紡績會社를 中心으로한 綿紡績業界는 淸日戰爭

1) [R], pp. 20~4.

(1894~95年)을 前後하여 機械制 大工業을 實現하게 되었다. 특히 日清戰爭의 승리에 따른 綿紡績業의 急速한 發達은 國內市場의 完全獨占을 可能케 하였으며, 그 結果 後進資本主義 國인 日本은 紡績業에 의한 産業資本을 確立할 수 있었다.²⁾ 綿紡績業의 이러한 急速한 確立의 基礎條件은 國際的인 技術水準의 機械에 의하여 많은 低賃金勞動力을 結合시켜 晝夜 二交代制를 採用하여 機械의 最大限의 活用을 도모하므로써 生産費를 國際水準以下로 低下시킬 수 있었던 點에 있었다.³⁾

이러한 紡績業에 의한 産業資本을 唯一의 基盤으로 日本資本主義는 明治維新을 期期로 하여 대개 1897(明治 30)~1907(明治 40)년에 걸쳐서 確立되었다.⁴⁾ 日本産業主義의 形成·確立의 過程에 있어서 歐美先進諸國은 이미 資本主義의 確立을 끝내고 막 帝國主義段階으로 突入하고 있었다. 영국·프랑스·미국 등 歐美先進列強의 産業資本主義는 相互競爭하면서 世界の 他地域을 차례차례로 商品市場化·原料供給地化하였으며 그 大勢에 거역하는 경우에는 軍事力으로 打倒하여 植民地化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對抗하면서 後進資本主義國 日本이 世界市場과의 密接한 連繫을 確立하기 위해서는 國家의 強力한 補強措置를 必要로 하였다. 예를 들면 國家的 金融機關에 의한 貿易金融이라든가 航海獎勵法等에 의한 補助金 交付와 같이 여러 가지 國家的 保護政策下에서 三井, 三菱과 같은 財閥資本이 海外市場과의 流通過程을 擔當하여 確立期의 日本資本主義의 再生産構造를 補完하였다.

이러한 國際環境下에서 日本의 資本主義는 國內의 낮은 經濟發長을 基礎로 하여 「위(上)로부터의 資本主義化」⁵⁾가 強制的으로 遂行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市民革命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點 등 몇 가지의 重要的 歷史的 特質을 띠고 있으나 本章에서는 勞使關係와 關聯하여 다음 세 가지 點에 重點을 두고 그 基本的 特質을 考察하고자 한다.

첫째, 日本資本主義가 明治維新의 地租改正을 계기로 成立된 寄生地主制에 基盤을 두고 있다는 點이다. 明治新政府는 우선 先進諸國의 軍事的 壓力에 對抗하고 또한 舊武士層의 反抗을 抑制하기 위하여 強力한 軍備를 必要로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行政機構를 整備하고 社會·經濟體制를 歐美의 生産力에 對應할 수 있도록 改革하기 위하여는 巨額의 資金 調達과 經常的인 財源의 確保를 必要로 하였다. 그 때문에 新政府財政의 確立은 緊要한 課題이며, 德川封建體制의 經濟的 基盤이었던 高率의 現物貢租를 減少시키는 것은 不可能하였다. 또한 商品經濟의 發展을 指向하는 經濟的 要請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貢租의 金納化도 不可避하였다. 이러한 時代的 諸要因이 1873(明治 6)年の 地租改正을 招來케 하였다.⁶⁾

2) [L], pp. 242~5.

3) [L], p. 244.

4) [M] 參照.

5) [K], p. 33.

6) 地租改正의 內容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할 것. 永原慶二編 『日本經濟史』, 有斐閣, 昭和 54年 pp. 176~9.

〈表 II-1〉 租稅收入의 構成

	1975年(明 8)	1884年(明17)
計	58,610(100%)	65,055(100%)
地 租	50,345(86%)	43,425(67%)
酒 稅	2,555(4%)	14,068(22%)
海 關 稅	1,718(3%)	2,750(4%)
煙 草 稅	206(一)	1,294(2%)
其 他	3,786(7%)	3,518(5%)

(資料) 兵藤劍外 2名 『日本資本主義と勞働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77, p.9.

〈表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租는 改正後에도 여전히 政府의 經常歲入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財源의 확보는 地租改正의 直接的인 目的이었던 舊貢租額의 維持가 거의 達成되었으려, 더욱이 豊·凶에 關係없이 一定額의 金納地租가 確保되므로써 國家財政의 基盤이 安定되어 國家諸機關의 計劃的인 整備·強化를 可能케 하였다. 反面 地租改正에 의하여 私의 所有權이 法的으로 인정되었지만 거기에는 地租納入義務를 수반하였기 때문에 農民에게는 二重으로 作用되었다. 우선 農家經濟가 貨幣經濟에 包括되지 않은 채 地租가 金納化되었기 때문에 農民의 農產物換金의 條件을 劣惡化시켰으며, 이러한 換金의 必要性은 농민을 商人의 價格支配下에 從屬시켜 貧農의 土地喪失을 促進하였다. 다음은 高率인 新地租는 小農民의 資本의 原始的 蓄積條件을 阻害하였으며, 그 後의 經濟的 變動에 의하여 土地는 急速히 地主의 손에 集中하여 土地集中=地土化란 現象을 초래하였다.⁷⁾ 그 結果 農民層의 分解가 進展되어 零細農民의 프롤레타리아화가 加速化되었다. 그러나 商品經濟의 展開가 不充分하고 勞働市場이 아직 狹隘한 狀況下에서 零細農民의 土地喪失은 곧 바로 土地로부터 解放된 賃勞動의 創出을 可能케 하지는 못하였다. 土地를 喪失한 농민은 流出處를 잃은 채 여전히 土地에 緊縛되어 高率小作料下에서 小作農으로 轉落된다든가 아니면 身分的인 隸屬關係를 清算하지 못한 채 地主의 小經營이나 兼業加工經營의 勞動力으로써 雇傭되어 寄生地主化를 促進하기에 이르렀다.⁸⁾

이처럼 日本의 農村은 資本主義的 工業이 있어서 食糧이나 原料의 供給源이 되었을 뿐 아니라 勞動力과 資本金의 重要한 補給源으로도 되어 소위 「國內植民地」로써의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明治維新에 의한 土地改正과 寄生地主制의 成立에 의하여 零細耕作農民은 自營農民의 自由스러운 土地所有 즉 小經營으로서 發展함이 없이 地租·地代의 重壓에 의하여 全剩餘勞動을 搾取당하며 傳來的인 低生産力水準下에서 地主로부터 人格的 隸屬

7) [F], p. 8~9.

8) [F], p. 23.

을 받았다. 이러한 事情은 단지 農村出身의 勞動者가 많다고 하는 量的인 意味만이 아니고 質的으로도 日本의 勞動者階級の 性格과 意識等에, 또 한편으로는 日本의 勞使關係에 至大 한 影響을 미쳐 以後의 「日本의 低賃金構造의 重要한 要因」⁹⁾으로 되었다는 點은 日本資本主義의 構造의 特質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둘째, 日本資本主義는 産業諸部門間 의 不均等한 構成·發展에 의하여 確立되었다는 點이 다. 우선 農·工間의 有業者構成을 보면, 1907(明治 40)年의 경우 農林業 65%, 鑛工業 16%, 商業 11.7%로 되어 있다. 이 有業者構成比는 日本資本主義가 確立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壓到的으로 鑛工業從業者에 비해 農業從事者가 많다고 하는 異常性을 보여주고 있다.

또 國民總生産額을 보더라도 同年의 農林生産額이 51.4%, 家內工業生産額 18.5%, 工場工業生産額이 30.1%이다.¹⁰⁾ 이 事實은 農業과 工業의 資本主義化가 同時並行的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그러나 生産指數를 보면 農林業이 1892(明治 25)年을 100으로 한다면 1907년에 289, 工場工業이 466으로 農·工間의 不均等發展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不均等性은 工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化와 農業에 있어서의 非資本主義化라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現狀은 鑛工業部門內部에 있어서도 역력하였다.

〈表 II-2〉를 보면 紡績 및 鑛山業에서는 工場이 大規模化하였으며 反面 製糸·織物機,

〈表 II-2〉 10人 以上の 工場과 職工數

部 門	職工·鑛夫數別 1900年末(1909年末)			職工·鑛夫數合計			
	500人 以上	100人 以上	10人以上計	1900年	1909年	1909年 男子	
紡織	製糸	3 (25)	238(436)	2,558(2,945)	118,804	184,397	9,611
	紡績	43 (67)	44 (23)	149 (124)	62,856	102,986	21,347
	織物共	12 (19)	51 (95)	1,367(4,245)	49,229	127,441	17,648
	計	58 (115)	340(585)	4,277(8,301)	237,132	442,169	60,896
飲食物	3 (3)	25 (96)	835(2,396)	25,403	62,867	43,534	
化學	1 (4)	81(146)	810(1,579)	35,566	65,966	42,668	
機械器具	9 (11)	40 (73)	413(1,092)	29,730	54,810	51,863	
其他	3 (6)	34 (78)	630(2,027)	23,728	62,858	40,509	
鑛山	金屬山	14 (29)	51 (55)	206 (…)	54,805	74,105	61,657
	石炭山	35 (58)	70 (…)	266 (…)	70,508	152,515	113,957
	其他共	49 (90)	121 (…)	472 (…)	140,846	235,809	184,766
官廳直轄工場	12 (22)	11 (26)	27 (67)	36,237	117,259	92,875	
合 計	135 (251)	652 (…)	7,464 (…)	528,642	1,041,738	517,111	

(出所) 後藤 靖外 2名 『日本資本主義發達史』, 有斐閣, 昭和 54年, p.72.

9) [M], p. 62.

10) [N], p. 71.

6 經營學研究

器工場은 零細企業이 壓倒的으로 많다. 이러한 不均等한 産業構造는 日本資本主義의 對外 依存性과 脆弱性을 조래하였다. 즉 美國 및 프랑스에의 生糸輸出 및 石油·機械의 輸入, 中國·韓國等에는 綿糸布輸出, 英國其他國으로 부터는 鐵·機械類輸入이라고 하는 貿易構造에 의하여 비로소 日本資本主義의 再生産이 可能하였다.

셋째, 日本資本主義가 日本의 특수한 勞動力型에 의하여 規定되고 있다는 點이다. 예를 들면 大河內一男氏에 의하면¹¹⁾ 一國의 勞使關係의 特質은 當該 資本主義의 特殊한 型에 의하여 規定되며 거기에서 創出되는 「勞動力」의 特殊型을 媒介로 해서만이 올바르게 理解할 수 있다는 視角에 서고 있다. 또한 日本資本主義의 勞動力의 特質을 勞動力의 再生産이 農家經濟와 結合하면서 행하여지는 것을 特徵으로 하는 「出稼型」으로서 把握한 후 이러한 性格과의 關聯下에서 日本의 勞使關係의 特殊性을 解明하였다. 「出稼型」으로서의 勞動力이란 그에 의하면 英國의 賃勞動처럼 오랫동안의 農民의 離村의 結果로서, 工場地帶에 蓄積되어 再生産을 되풀이 하면서 成熟하여 간 赤手空拳의 「勞動人口」로부터 形成된 것이 아니고 最初부터 이러한 農民離村을 歷史的으로 經過하는 일 없이 封建時代의 農奴의인 零細農民이 옛 그대로의 經濟的 負擔을 지면서 商品生産社會 속으로 沒入하는 것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日本의 勞使關係는 權力的 身分의인 性格을 띠기 되었으며 기타 勞動條件, 勞動市場, 勞動組合 그리고 勞動者意識等도 이러한 性格의 賃勞動에 의하여 規定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2. 重工業의 勃興과 勞動力構造의 變化

(가) 重工業의 勃興

日本에 있어서 重工業發展의 端緒는 1880年代 後半에 發端된 企業勃興期로부터 淸日戰爭에 이르는 時期이다. 그 以後 明治維新以來 政府에 의하여 經營되어온 官營工場의 一部인 陸海軍의 軍工廠이 急速히 擴大되어 그 工場의 一部가 소위 「政·商」資本에 拂下된 것을 契機로 대폭적인 發展을 이루었다.

우선 企業勃興期에 있어서 重工業의 發展을 보면 帝國主義的 對立이 激化하여 가는 國際環境에 規制되어 陸海軍工廠에서는 1884年 以後의 軍擴大計劃에 따라 工場의 擴充이 실시되었다.¹²⁾ 海軍에서는 既設의 橫須賀造船所의 整備과 함께 1889년에는 吳에 造艦工場, 翌年 1890년에는 佐世保에 修繕工場의 建設을 着手하였는데 이 過程에서 鐵製軍艦製造를 鋼製軍艦製造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러한 造艦事業의 進展에도 불구하고 大型軍艦은 거의 輸入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陸軍에서도 東京砲兵工廠에서 18年式村田銃의 製作이 시작되어 携帶火器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生産할 수 있을 정도의 兵器生産의 自立化가

11) [O], pp. 1~10.

12) [G], p. 56.

進展되었지만 野山砲・海岸砲等의 一部를 供給하는데 그쳤다.¹³⁾ 이에 대하여 資本家的 企業에 의한 重工業의 中樞를 이룬 것은 造船業이었다. 그러나 巨額의 資金을 要하는 鋼船建造에 着手할 수 있었던 것은 官營工場의 拂下를 받을 수 있었던 三菱, 川崎等 大造船所에 지나지 않고 其他 대부분은 木造船建造에 머물렀다. 여기에서 鋼船建造를 행한 大造船所라고는 하여도 尖端의 生産技術을 體系的으로 輸入할 만큼의 資本力을 充分히 備蓄할 수 없었다. 더우기 當時의 重工業의 製品市場은 極히 狹小하였기 때문에 民間의 大企業은 限定된 職工을 有效히 使用하여 多種多様な 製品의 生産과 修理에 從事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事情 때문에 淸日戰爭까지는 大型船舶은 대부분 輸入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以上 記述한 것처럼 1880年代의 後半부터 1890年代 前半에 걸쳐서 重工業은 造船造船部門을 中心으로 하면서 하나의 轉換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 發展은 아직 極히 微微한 것이었다. 이러한 狀態에 있던 重工業에 새로운 展開에의 刺戟을 준 것은 淸日戰爭에 수반된 軍需, 나아가서는 戰後 産業革命의 達成을 背景으로 하여 強化된 保護政策下에서의 市場의 擴大였다. 즉 淸日戰爭의 勃發에 의하여 갑자기 軍用船의 建造・修理作業이 增大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동안에 아시아의 後進地域을 原料販賣市場으로 하여 産業資本을 確立하고 있던 紡績業이 이 地域의 市場을 安定的으로 確保하여 가기 위하여는 國內船에 의한 遠洋航路의 開設을 必要로 하고 있던 것을 背景으로 하여 1895년에 「航海・造船獎勵法」¹⁴⁾이 制定되고, 다시 1899년에 同法의 改正에 의하여 大型船의 國內建造에 대한 保護政策이 強化되었기 때문에 大型船이 겨우 國內企業에도 發主되지 않게 되었다.¹⁵⁾

이렇게 하여 이 時期의 重工業은 政府의 育成措置에 의하여 民間造船業이며 軍擴充計劃에 뒷받침된 軍工廠等의 分野에 相當한 大規模工場制工業이 發達함과 同時에 他面에서는 輸入製品의 修理作業이라든가 어느 程度 國産化된 製品의 部品生産 혹은 木造船과 같이 傳統的 製品의 生産에 종사하는 小規模企業의 竝存을 초래하였다. 이 時期에 先進國의 重工業은 이미 高度의 技術的 發展을 이룩하여 巨額의 資本을 要하는 段階에 達하여 있었으나 日本으로서 이러한 先進國의 技術을 移植할 수 있는 基盤이 充分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國家資本에 의하여 經營된 軍工廠 및 政府의 保護를 받은 造船業을 中心으로 한 民營企業이 刮目할 만한 發展을 보였다. 政府가 軍工廠・造船業等에 이러한 育成措置를 취한 것은 첫째, 帝國主義對立이 激化되고 있던 當時의 國際環境 속에서 獨自의인 資本主

13) [S], p. 21.

14) [P], pp. 151~3.

15) 1887年 以後 이 時期까지는 500石積以上の 大型船建造를 禁止하고 있었다.

義化를 피하기 위해서는 直接 軍需生産에 關聯있는 이들 分野를 育成할 必要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民間造船業 혹은 車輛·原動機生産等에 대한 育成措置는 紡績業을 基軸으로 하는 産業資本의 發展에 促進되어졌기 때문이다.¹⁶⁾

(ㄴ) 勞動力의 蓄積과 熟練의 變容

上述한 바와 같이 日本의 重工業은 1880年代末부터 淸日戰爭後에 걸쳐서 軍工廠 및 造船業을 中心으로 展開하여 왔다. 이러한 重工業의 展開는 農業대지는 手工業의 分解에 의해 流出된 勞動力을 통하여 行하여졌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¹⁷⁾ 이 結果 重工業에 있어서의 勞動力의 蓄積은 紡績業等에 있어서의 職工의 急增 때문에 그 만큼 制限을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速度는 매우 急激하였다.

〈表 II-3〉 重工業職工數의 推移

(單位 1,000人, %)

	鑛工業職工數(A)	重工業職工數			B/A
		民	營	官 營 計 (B)	
1887年	121.8	5.2	7.1	12.3	10.1
88	133.2	4.6	7.1	11.7	8.8
89	229.6	7.0	6.7	13.7	6.0
90	357.1	5.3	7.7	13.1	3.7
91	332.7	7.0	9.0	16.0	4.8
92	306.8	7.0	10.3	17.3	5.6
93	297.1	9.8	9.6	19.4	6.5
94	396.0	16.1	12.2	28.3	7.1
95	435.8	16.8	15.3	32.1	7.4
96	456.2	20.7	15.9	36.5	8.0
97	460.2	15.3	16.8	32.1	7.0
98	435.1	22.5	18.7	41.2	9.5
99	435.7	23.0	22.7	45.7	10.5
1900	436.8	30.9	28.5	59.4	13.6

(資料) 東京大學經濟學會 『經濟學論集』 第30卷 4號, 東京大學出版會, p. 24.

〈表 II-3〉을 보면 1880年代末부터 重工業의 職工數는 상당한 速度로 增大하고 있었지만, 특히 淸日戰爭부터 그 直後에 急速히 增大하여 鑛工業職工數中에 차지하는 重工業職工數의 比率는 1890年의 3.7%에서 1900년에는 13.6%로 높아졌다. 더욱이 10人 以上の 民營機械工場 및 官營工場을 보면 58.2千人的 職工 中에 100人 未滿의 中小工場의 職工이 9.7千人 (16.7%)으로 적지 않은 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職工數 500人 以上の 大規模의 民營

16) [S], pp. 23~4.

17) [S], p. 24.

및 官營工場에는 78.4%에 달하는 45.6千人的 職工이 集中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重工業이 그 勃興期부터 大規模로 展開되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表 <II-4> 參照).

<表 II-4> 規模別重工業職工數

(千人, %)

	10~49人	50~99人	100~499人	500人 以上	官營工場	計
實 數	6.1	3.6	7.9	17.1	28.5	58.2
比 率	10.5	6.2	13.6	29.4	49.0	100.0

(資料) <表 II-3>과 同一

그런데 上述한 바와 같이 重工業이 展開되는 過程에서 技術的인 面에서도 轉換을 가져왔다. 즉 그것은 勞動過程의 變化를 통하여 熟練의 內容과 職種의 構成에도 어느 정도의 變化를 가져왔다. 이 過程을 重工業의 中樞部門인 造船·造船部門을 中心으로 概觀하여 보면 우선 鋼製汽船의 普及에 따라 木船時代의 基幹的 勞動力이었던 船大工(船匠)이 職場을 잃게 되었으며 둘째, 鋼製汽船의 出現은 船大工等の 職種대신에 새로운 熟練을 가진 職種 즉 造船工(鐵船工, 鐵木工等)을 創出하게 되었다. 셋째, 以上과 같은 職種의 變化를 일으키면서 행하여진 工場의 新設擴大는 建築作業, 運搬作業, 工場雜役等に 從事하는 勞動者를 增大시켰다.¹⁸⁾ 그런데 上述한 第3의 職工을 제외하면 當時의 重工業은 大工場이라고는 하지만 대개 手工的·萬能的 熟練을 가진 男子勞動者를 必要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¹⁹⁾ 예를 들면 造船業에 있어서 船大工等은 물론 새로이 船體部門의 基幹職種으로 된 造船工도 지극히 多種多樣한 作業에 대한 熟練이 要求되었으며, 더우기 그것은 할마 등의 道具에 의하여 행하는 手工的인 性質을 가진 作業이 많았다. 이처럼 重工業勞動者가 대부분 手工的·萬能的이었던 까닭은 첫째, 日本의 輸入處인 西歐의 重工業의 生産技術이 아직 勞動者의 手工的·萬能的 熟練을 完全히 不必要로 할 정도의 發展을 하지 못하였다는 事實과 相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둘째, 輸入移植過程에서 많은 制約, 예를 들면 資本蓄積으로부터 오는 限界 때문에 落後된 生産手段에 依存하는 中小工場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政府로부터 直·間接으로 保護를 받고 있는 大企業에서 조차 巨額의 資金을 要하는 生産手段을 輸入하는 대신 低賃金勞動者의 熟練에 依存하려고 한 것이 熟練을 一層 手工的·萬能的으로 만들었다.

18) [G], pp. 59~68.

19) 1900年の 民間企業의 重工業職工에 대하여 보면, 그 99.0%가 男子였으며, 1898年の 陸軍砲兵工廠에서는 職工의 99.7%가 男子, 同年 海軍工廠에서는 女子職工은 全無였다[S], p. 28. 參照.

3. 勞動市場의 流動化와 間接的 管理體制의 成立

(1) 見習職工制度의 普及과 그 形骸化

周知하는 바와 같이 日本은 幕末維新期에 直民地化의 危機에의 對應과 國內에 있어서의 權力鬭爭의 基盤으로써 軍工廠과 造船所를 비롯하여 紡織의 纖維産業에 이르기까지 廣範하게 西歐先進技術을 導入하여 그 移植을 도모하였다. 이 때에 最大의 問題는 資金問題이었지만 이것에 못지 않은 것이 技術者 및 熟練勞動者의 不足이었다. 西歐 先進技術을 操作하는 人的 要因에 대해서는 그 技術體系에 質的 格差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그 對策을 講究하지 못하였다.²¹⁾

維新以來 明治政府는 官營工場에 의하여 重工業의 移植을 도모함에 있어서 傳統的 熟練을 계승한 職人을 賃勞動者化하여 基幹勞動者를 創出함과 同時에 職工學校에 의한 年少勞動者의 組織的 教育을 통하여 熟練勞動者를 養成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熟練勞動者의 養成은 대개 傳統的인 職人의 徒弟制度를 계승한 形態下에서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方法에 의하여 訓練된 勞動者는 새로운 生産技術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徒弟教育의 欠陷을 技術的 知識에 의하여 教育할 수 있는 施設의 設置는 當業者 사이에서 絶실히 요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要請에 부응하여 政府는 1886年 義務制인 4年制 普通小學校, 1893년에는 實業補習學校規定, 翌년에는 徒弟學校規定을 公布하여 드디어 1899년에는 이들을 實業學校令으로 統合하여 普通教育을 基礎로 하는 實業教育의 整備에 全力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들 施策은 意圖와는 달리 下級技術者의 養成機關으로 化하여 버렸다. 그 때문에 勞動者의 技能養成이라고 하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었다.

이러한 事情으로 인하여 職業教育施設이 職工의 技能養成機關으로서 定着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登場한 것이 企業이 直接 職工의 技能을 養成하여 가는 方法, 즉 見習職工制度가 그것이다. 예를들면 1887年 芝浦製作所가 「徒弟規則」을 90년에는 三菱長崎造船所가 「職工見習規則」를 95년에는 大阪砲兵工廠이 「修業職工」, 石川島造船所가 「修業生徒」를 各各 設置하였다. 이 見習職工制度下에서는 대개 15~4歲부터 20歲까지의 年少勞動者를 採用하여 소위 「용돈」 정도의 低賃金을 支給하면서 見習期間 中の 強制貯蓄, 見習期間終了後의 就業義務를 賦課하여 技能의 習得에 임하게 하였다.²²⁾ 그러나 企業은 단지 一定數의 見習職工을 採用하여 強制貯蓄等에 의해 期間中の 移動을 防止하는 施策을 시도함에 그쳤으며, 實際의 技能傳授는 職長等の 古參勞動者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徒弟를 自己의 私用으로 使用」²³⁾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더욱기 横山源之助가 「특히 어떤 工場이라고 할 것 없이 어

21) [J], p. 70.

22) [G], pp. 101~5.

23) 農商務省『職工事情』生活社版 第2卷, 昭和 23年, p. 27.

는 工場에도 見習職工으로써 見習年月을 채우는 경우는 매우 적고, 2~3年 정도로 多少의 賃金を 얻을 수 있는 技能에 달하면 대개 그 工場을 逃走하여 다른 곳에 僱傭된다.]²⁴⁾고 記述하고 있는 것처럼 熟練勞動者의 不足이 激化되자 見習職工까지도 爭奪과 스카우트의 對象이 되었다. 이 方法에 의한 見習職工制度도 形骸化되어 버렸다. 그 結果 重工業界에 있어서의 熟練勞動者는 單身만이라도 自己의 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賃金を 받으면서 等給이 높은 技能을 習得하여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大企業은 見習職工制度가 形骸化되어 버리자 農家 내지 都市雜業層에서 流出하는 年少者의 競争을 利用하여 低廉한 勞動力을 確保하여 가는 것이 可能케 되었다. 이러한 年少者는 極端의 低賃金下에서 擄取되면서 어깨 너머로 걸차 技能을 익혀가는 形態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熟練과 未熟練과의 差異가 質的으로가 아니고 단지 經驗年數의 量的인 差異에 의하여 區別되었기 때문에 熟練勞動(力)이라고 하는 것이 社會的 範疇로서 명확히 形成되지 못하였다.²⁵⁾ 여기에 새로이 登場한 것이 露日戰爭後 大企業內에 널리 보급된 「養成工」 制度이다. 이 點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ㄴ) 橫斷的 勞動市場의 成立과 그 構造

日本の 重工業은 維新以來 西歐技術의 移植에 의하여 새로이 成立되었기 때문에 當初부터 이에 對應할 수 있는 熟練勞動者는 不足狀態에 있었다.²⁶⁾ 특히 清日戰爭以後 重工業의 擴大·發展에 의하여 熟練勞動者의 不足은 더욱 激甚하였다. 예를 들면 橫須賀海軍工廠에서는 晝夜二交代制를 취하였는데 「職工의 人員은 거의 倍數를 要하여 그 不足에 매우 高給을 받아 臨時로 募集을 하려고 해도 全國의 機械·造船職工은 業務多忙하고 應募者는 적어 더욱 困難을 느끼게 되었다」²⁷⁾고 하는 狀況이었다. 그 結果 勞動需要의 增大에 따라 熟練勞動者의 流動을 招來케 되었다.

「職工事情」에 記載되어 있는 政府의 調査에 의하면 職工의 勤續年數는 表 <II-5>에서 提示하는 바와 같이 業種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지만 勤續一年未滿이 거의 1/2을 차지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鐵工의 事情을 살펴보면 勤續 6個月 未滿이 12.9%, 6個月~1年은 39.6%로서 합치면 50%를 上廻하고 있다. 이처럼 熟練勞動者의 流動이 可能하였던 것은 앞서 記述한 것처럼 生産이 勞動者의 熟練度에 依存하는 정도가 높고 더우기 그 熟練度는 勞動者가 몸소 習得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手工的 性格인 것으로 勞動力이 各各의 職種の 範圍內에서는 꽤 높은 社會的 通用性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勞動者는 移動에 의하여 보다 좋은 賃金과 地位를 얻었으며 또 한편으론 技能과 職歷을 쌓아갔다.

24) 横山源之助『日本の下層社會』, 岩波文庫, 1954, p. 237.

25) [J], pp. 53~4.

26) 隅谷三喜男『日本賃労働史論』, 東京大學出版會, 1968, pp. 232~4.

27) [B], pp. 164~5.

〈表 II-5〉 職工의 勤續期間

(1903年 當時)

	性	調査數	6個月 未滿	6個月 ~1年	1~2年	2~3年	3~5年	5年 以上	計
鐵工	男	9,733	12.9	39.6	6.6	17.8	11.4	11.7	100.0
印刷工	男	2,727	23.8	18.3	18.8	11.8	11.4	15.9	100.0
紡織工	男	5,368	29.2	19.7	17.6	12.0	12.7	8.9	100.0
	女	19,344	27.3	29.4	18.3	11.9	13.6	8.6	100.0

資料：農商務省『職工事情』第1卷(生活社, 昭和23年, p.70, 第2卷, p.11, 223. (職工은 三菱長崎造船所, 芝浦製作所等을 포함한 9개의 重工業勞動者의 數值임).

그러나 이러한 重工業勞動者의 移動에 그 어느 정도의 障害가 潛在하고 있었다. 遠隔地에 移動하는 경우는 別度로 하더라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造船工等은 鋼船製造를 行하는 大企業外에는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移動範圍는 大企業間에 限定되어 있었으며, 鍛冶工, 鑄物工, 旋盤工, 完成工(마무리工)等 經營規模에 관계없이 廣範하게 보여진 職種에서도 多少 移動하기 어려운 事情이 存在하였다. 즉 그것은 大企業과 小規模工場間에도 어느 정도의 다른 熟練을 必要로 하는데 基因하고 있다. 이러한 勞動者의 流動속에 形成되는 重工業 勞動市場은 熟練을 要하지 않는 分野의 勞動市場과 接續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重工業 勞動者로서 通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經驗을 必要로 하는 熟練上의 障壁이 存在하기 때문에 熟練을 要하지 않는 分野의 勞動市場으로부터 어느 정도 隔離된 職種別 勞動市場으로서 展開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日本에는 徒弟制度가 形成되어 있지 않음을 推定할 수 있다. 이러한 事情이 潛在하여 있음에도不拘하고 企業의 規模에 關係없이 同一職種間에는 빈번한 勞動者의 移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만큼 熟練勞動者의 不足이 深刻했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以上の 事實에 根據하여 類推할 수 있는 것은 日本에도 歐·美에서와 비슷한 橫斷的인 勞動市場이 成立되었다는 點이다. 그러나 歐·美의 橫斷的 勞動市場과 다른 점은 歐·美에서는 熟練이 社會的인 範疇로서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熟練勞動者의 「賃率」이 形成되지만, 日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賃金은 個個의 勞動者의 經驗, 技能에 따라서 支拂되어지는 關係가 一般的이었다.

이와 같은 狀況에 對備하여 企業은 熟練勞動者의 定着化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對策을 講究하였다. 예를 들면 三菱長崎造船所에서는 이미 1890年 以來 3年 契約의 「定傭職工」 制度를 設치하였고, 1897년에는 새로이 勤續年數에 따라 隱退·解雇手當金을 支給하는 制度를 規定하여 勞動者의 定着化를 試圖하였다.²⁸⁾ 그럼에도不拘하고 熟練勞動者의 不足은 結局 이러한 勞動者 定着策에 의해서도 勞動者의 移動을 防止할 수 없었다. 특히 勞動條件

28) 三菱長崎造船所 職工課『長崎造船所 勞務史』第1編, 1930年, p.37.

에 不滿이 있는 경우에는 移動한다는 姿勢를 취하게 됨으로써 淸日戰爭後 職長 내지 管理者의 恣意的인 權限行使가 後退하게 되었다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二) 間接的 管理體制의 成立과 衰退

그러면 이러한 勞動市場의 流動化 속에서 企業의 「勞務」政策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成立되었을까. 維新以後 西歐技術을 導入한 官營工場에서는 各工場에 配置된 技術者에 依據하여 生産過程에 對한 統制力을 強化하여 勞動能率을 發揮케 하려고 하였지만 所期의 意圖대로 되지 않았다. 當時의 技術者는 小數였으며 더욱기 直接 各職場을 管轄하는 下級技術者가 作業을 指揮할 能力을 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生産過程의 把握은 극히 困難하였다. 이러한 障害에 直面한 企業이 그 打開策으로써 취한 方法은 親方勞動者를 職長으로 登用하여 이를 통해서 下級技術者로서의 職長管理者가 勞動者를 間接的으로 統轄하여 가는 機構가 成立하게 되었다.

이러한 事態가 發生한 것은 管理에 임하는 技術者가 管理對象인 勞動者에 比하여 너무 小數인 까닭도 있지만 보다 根本的으로는 生産이 手工的 熟練에 깊게 依存하고 있는 當時의 狀況下에서는 勞動者의 技能을 判斷하여 採用·配置하며 그에 따른 그들의 賃金을 決定한다든지 作業의 節次와 方法을 細部的으로 指示할 충분한 能力을 갖춘 자가 없었다. 때문에 長年의 經驗에 의하여 高度한 熟練을 習得하여 勞動者의 指揮能力을 갖춘 古參勞動者를 職長으로서 登用하여, 그들에게 廣範한 管理技能을 委託하는 것이 慣例였다.²⁹⁾ 그러나 勞動能率이 勞動者의 勞動意欲에 依存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職長을 통한 間接的 管理의 機構에 의해서 만든 勞動能率을 충분히 規制하기가 困難하였다. 이에 對한 企業의 對策이 刺戟的 賃金形態에 의하여 勞動者의 勞動意欲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導入된 것이 親方請負制이다. 이것은 職長이 一定의 金額으로 請負받아 作業의 指揮·監督에 임하는 것이었다. 企業側이 이 制度를 導入한 理由는 職長에게 作業의 指揮監督을 맡기면 그는 請負利益의 增大를 目標로 配下의 勞動者들을 統率하는 方法에 期待하는 以外에는 다른 勞動能率을 높일 수 있는 有效한 方法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職場管理體制가 分權化(職長이 갖고 있던 作業管理·人事管理上의 機能의 一部分이 職場管理者에게 吸收되었다.)되고, 또 親方請負制에 있어서도 그 請負利益의 配分이 客觀化³⁰⁾되고 더욱기 個人을 單位로 하는 成果給制가 導入되어짐에 따라 職長에 의한 管理方法, 즉 間接的 管理體制도 서서히 後退하게 되었다.

29) 東京大學經濟學會『經濟學論集』第32卷 第2號, pp. 98~100.

30) 請負金額이 競争入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請負利益이 一定率로 配分되어 있었다(東京大學經濟學會, 前掲書, pp. 103~6.).

4. 勞使關係觀의 轉換과 勞動者의 組織化

(一) 連帶意識의 形成

當時 產業界에 支配的이었던 勞使關係觀은 「身分的」인 것이었다. 즉 使用者는 身分的으로 上位에 從業員은 下位에 位置하이 使用者에 從屬하이야 된다는 態度가 그것이다.

明治初年 以後 西洋諸國과는 달리 自由主義라든가 個人主義의 思想의 洗禮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日本에서는 封建的 身分思想은 그대로 國家主義나 내쇼널리즘과 結付되었기 때문에 近代의인 人間本然의 價値로서의 個人의 自由나 人間性의 尊嚴에 關한 思考力은 成熟할 餘地가 없었다. 바꾸어 말하면 「主從의 情誼」를 基本으로 하는 勞使關係의 思考方式이 當時 產業界는 물론 各界各層에 支配的이었다. 그런데 「主從의 情誼」의 思想을 定着시키려던 當然 勞使間의 雇用關係는 身分的이어야 하며, 따라서 勞動者는 個個의 企業主에 대하여 身分的으로 從屬의 地位에 位置하지 않으면 안된다. 元來 資本主義의 近代의 勞動關係에서는 賃勞動者는 自由스러운 賃勞動의 賣主로서 買主와 對等·平等한 交渉에 의하여 去來를 하게 되어 身分的인 上位·下位의 差別은 存在하지 않는다. 이러한 認識이 清日戰爭을 契機로 하는 重工業의 擴大와 流動的인 勞動市場에 의하여 싹트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雇用主對 被雇用者의 關係를 「主從關係」로서 理解하여 왔던 傳統의인 觀念은 根本的으로 무너지고, 이것을 勞動者의 賣主와 買主의 關係로서 파악하는 觀念이 擡頭되었다. 예를 들면 1898年 政府가 「勞動者 保護」를 政策目標로 하여 내세운 「工場法」³¹⁾을 農商工 高等會議에 諮問하였을 때 傳統의인 主從關係의 情誼에 의해서는 勞使關係의 安定을 도모하는 것이 困難하다는 것을 認識하게 되었다. 그래서 政府는 主從의 情誼를 「古風的인 德義」³²⁾로 하여 「紛亂을 未然에 防止할」 手段을 講究하려고 한 反面 經營者側은 政府가 構想하는 工場法案에 強力한 反對를 表明하여 傳統의인 主從關係를 그대로 放任할 것을 主張하였다.³³⁾ 그 結果 工場法은 明治 44(1911)年에 이르기까지 成立을 보지 못하였다.

(二) 最初의 勞動組合의 成立

政府·經營者間에 勞動問題 對策을 둘러싼 論議가 행하여지고 있는 가운데 他方에서는 知識層을 中心으로 勞動組合의 組織化 運動이 싹트고 있었다. 이러한 氣運속에서 工場勞動者를 中心으로 한 組織化 運動도 現實的으로 一層 前進하게 되었다. 美國勞動總同盟(AFL)의 組織員(Organizer)의 資格을 갖고 1895年에 歸國한 高野房太郎等에 의하여 1897年 7月에 「勞動組合 期成會」가 發足되었다. 이것은 물론 이 組織을 통하여 勞動組合의 組織化를 促進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勞動組合 期成會를 母體로 하여 同年 12月에는 最初의 勞動組合

31) 勞動者保護를 目的으로 夜間勞動禁止와 勞動時間制限을 主內容으로 하고 있다 [T], 參照.

32) 上은 下를 어엿히 여기며, 下는 上을 공경한다는 美風을 말한다. [A], p. 282 參照.

33) [G], p. 143.

인 「鐵工組合」이 1898年 2月에는 日本鐵道の 機關士들의 罷業을 契機로 「日鐵矯正會」가 99年에는 「活版工組合」이 各各 組織되었다.

本稿에서는 片山潛이 「進歩的 勞動組合의 標本」이라고 불렀으며, 1900(明治 33)년에는 42支部 5400餘名の 組合員을 거느리게까지 發達한 鐵工組合³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表 II-6〉 鐵工組合의 創立時의 組合員構成

工 場 名	組合員數	構 成 比
東京砲兵工廠	仕 上 場	189人 16.0%
	機 關 場	163 13.8
	修 理 場	108 9.1
	製 器 場	69 5.8
	鍛 工 場	41 3.5
	(小 計)	(570) (48.2)
銃 炮 科 鍛 工 場	銃 炮 科 鍛 工 場	64 5.4
	炮 具 製 造 所 鍛 工 場	43 3.6
	(小 計)	(677) (57.2)
甲 武 鐵 道	6 0.5	
新橋鐵道局	鍛 工 場	51 4.3
	旋 工 場	35 3.0
	(小 計)	(86) (7.3)
遷 信 省 旋 工 場	40 3.4	
平 岡 工 場	43 3.6	
中 島 工 場	53 4.5	
原 鐵 工 場	11 0.9	
東 京 紡 績 場	15 1.3	
竹 內 金 庫	14 1.2	
(日鐵)大 宮 工 場	53 4.5	
橫 浜 鐵 工	185 15.6	
計	1,183 100.0	

資料：木元進一郎編『勞使關係論』，日本評論社，1976，p. 168.

〈표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鐵工組合의 結成當初 結集한 勞動者는 官營工場과 大企業의 勞動者가 主體를 이루고 있으며 職種別로는 旋盤工, 마무리工等의 新型職種이 多數있었다는 것이 注目된다.

鐵工組合은 처음 그 運動의 方向을 歐美의 熟練勞動者의 組合이 위한 職業別 組合主義에서 求하였다. 그 規約 中 第1條를 보면, 「本組合은 全國各地에 居住하는 機械, 鍛冶, 鑄

34) 片山潛『日本の勞動運動』，岩波書店，昭和 27年，pp. 80~143.

造……等の 諸業에 從事하는 者로서 組織한다.」에서 분명한 것처럼 類似的의 職種에 從事하는 勞動者를 橫斷的으로 組織할 方針을 내걸고 있다.³⁵⁾ 이러한 組織原理下에서 그 活動에 있어서도 歐美의 職業別組合의 規範을 模倣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歐美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組合에 의한 職業紹介活動을 통해서 失業을 防止하고 勞動條件의 維持를 도모하려고 하였다.³⁶⁾ 또한 共濟手當制度를 採用하여 組合員이 火災, 業務上의 負傷, 疾病, 死亡에 대하여서는 求濟手當을 支給하였다.³⁷⁾

當時의 勞動者는 勞動이 不可能하면 곧 바로 生活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當初 이 制度는 組合의 發展에 커다란 寄與를 하였을 것이라는 點은 쉽게 想像할 수 있지만 失業求濟制度로써는 機能할 수 없었던 限界가 있었다. 또한 1899年頃부터는 組合費의 納入額보다도 支出, 특히 求濟費가 過多하였기 때문에 組合財政은 赤字로 되었다.³⁸⁾ 어쨌든 組合에 의한 職業紹介와 共濟手當制度라는 自助的인 方法을 통하여 勞動者의 生活을 向上시키려고 한 鐵工組合은 적어도 歐美流의 職業別組合을 모델로 하여 活動하려고 한 點은 위의 事實과 關聯시켜 吟味하여 볼 때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곧 歐美의 모델로 類推하는 데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萬能的·手工의 熟練이 分解되어 單能工이 多數 創出된 條件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點과 또한 日本勞動者의 賃金은 個個의 勞動者의 經驗·技能에 의하여 決定되었다는 點等을 아울러 생각하면 이들 勞動組合을 19世紀 中葉의 英國의 古典的 職業別組合(Craft-union)과 類似的인 것으로 理解하여 그 共通性을 強調하는 見解³⁹⁾에는 多少 疑問을 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上述한 바와 같은 勞動組合이 形成後 몇년 인되어 「治安警察法」⁴⁰⁾에 의하여 解體되어 버렸다. 이 事實은 歐美諸國에 있어서의 勞使關係의 形成過程과는 異なる 差異가 있다. 産業革命이 開始되고 工場工業의 發達에 따라 賃金勞動者의 勞動市場에의 流入이 시작되던 歐美에 있어서는 勞動組合이 自然發生的으로 結成되어 活動하는 것이 通例이다. 이러한 狀況이 되면 傳統的인 團結禁止의 措置를 폐지하고 「團結의 自由」, 즉 勞動組合 活動의 自由를 國家가 추진하여 法律로 明文化하므로써 오히려 勞使關係의 安定을 試圖하게 된다.

그런데 日本의 경우는 이런 過程과는 正反對의 方向으로 進行되었다. 近代産業이 發展하기 시작하여 雇用勞動者의 創出과 蓄積이 이루어지자 거기에 수반하여 勞動組合이 職種別

35) 大河內一男 「發明期の日本労働運動」, 勞波新書, 昭和 27年, p. 67.

36) 大河內一男, 前掲書, p. 154.

37) 大河內一男, 前掲書, p. 154.

38) [G], p. 173.

39) [A], p. 280.

40) 1900年 3月 天皇制政府에 의하여 公布되었다. 第17條에 의한 「組合加盟, 同盟罷業, 團體交渉에 阻害하여 暴行·脅迫·公然誹謗 및 同盟罷業의 誘惑·煽動이 禁止되」었는데 이것은 勞動組合의 活動과 勞動爭議等이 사실상 違法인 것과 다름없었다. [Q] 第1卷, 1959, pp. 745~6 參照.

내지 職業別組合으로서 登場하게 되었다. 이와 同時에 日本政府는 이들 組合을 治安警察法으로 壓殺하여 버렸다. 이들 組合은 어느 것이나 그 運動方向을 歐美의 熟練勞動者의 組合이 취한 職業別 내지 職種別組合의 組織原則에서 求하였다. 또한 當時의 組合結成時의 모델이 美國의 AEL組織⁴¹⁾이었다는 點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組合은 어느 것이나 勞動組合主義的 改良을 主眼으로 하였으며, 社會主義의 理想을로기만 내세운 急進的 團體가 아니었다. 또한 組合은 罷業에 의하여 勞動條件의 向上을 도모하려고 하는 方法에 대하여는 오히려 抑制하려는 態度를 보였다. 예를 들면 鐵工組合의 規約에 의하면 「本組合員으로서 雇用主와의 紛爭을 일으켰을 때」는 우선 支部幹事가 「仲裁의 手筈」를 하여야 하며 이것이 失敗한 경우는 參事會議長이 「現場에 出席하여 事實을 審査하여 雇用主와 仲裁의 裁斷을 열고, 「仲裁에 응하지 않거나 和解條件을 遵守하지 않는 者에 대하여는……參事會의 決議를 거쳐 相當의 處分을 한다.」고 되어 있다.⁴²⁾ 따라서 AFL모델에 의하여 形成된 이들 勞組가 當局의 團束의 對象이 될 만큼 急進的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不拘하고 成立과 同時 곧 治安警察法에 의하여 解體시켜 버린 理由는 무엇일까. 이들 組合의 崩壞를 조여준 決定的인 原因은 軍事的 理由일 것은 두말할 餘地가 없겠지만, 그 以外에도 共濟活動의 停滯, 歐美流의 職業別 組合主義를 貫徹할 수 있는 基盤의 不備, 특히 勞使關係에 대한 日本의 觀念 등이 크게 作用하였다는 點은 注意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 勞動組合이 産業社會에 定着하지 못한 채 衰退하여 버린 結果 勞動條件의 決定은 勞動者의 個別的 能力에 의하여 左右되어지게 되었다.

Ⅲ. 勞使關係의 再編成과 經營家族主義 登場

1. 重工業의 擴大와 技能養成 方法의 變化

日本の 重工業은 1880年代末부터 淸日戰爭에 걸쳐 陸海軍의 軍工廠 및 大企業에 의한 造船業을 基軸으로 하여 展開되어 왔지만 恐慌(1900~1年)의 勃發에 의하여 상당히 困難한 局面에 부딪쳐 있었다. 즉 淸日戰爭을 통하여 發展하여 온 大企業은 生産技術의 으로도 限界가 있어 戰爭終息과 함께 國內需要의 상당한 部分이 先進國의 大資本에 빼앗기는 狀況에 처하였다. 이러한 狀況에 놓여있는 重工業에 있어서 擴大의 契機로 된 것이 帝國主義의 列強의 勢力圈을 둘러싼 抗爭 속에서 勃發한 露日戰爭이었다. 이 戰爭에 의하여 有事時의 緊

41) AFL은 Samuel Gompers가 지도하는 職業別組合의 同盟體이며, 熟練技能者의 職種別組合이었으므로 최초로 政治鬭爭을 기피하였으며 오히려 同業의 熟練技能者의 經濟的 利益의 옹호를 運動의 主目的으로 하였다. [A], p. 280 參照.

42) 片山潛, 前掲書, p. 149.

急性에 對備하여 價格이 다소 비싸더라도 國內에서 可能한 것은 國內에서 發注한다는 政策이 취해졌다. 이렇게 하여 重工業은 비로소 急激한 市場의 擴大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結果 機械化가 量的으로도 質的으로도 더욱 進展하여 生産技術도 高度化되었다. 勞動過程도 淸日戰爭以後의 手工的·萬能的인 狀態에서 더욱 分化되고 專門化됨과 同時에 한층 더 높은 精密度가 要求되어졌다. 한편 露日戰爭을 契機로 하는 重工業의 擴大는 勞動者 不足이라는 現象마저 招來케 하였으며 그 傾向은 從來보다 더욱 深化되어 勞動者의 流動도 높아졌다. 또「職工不足의 結果는 이미 無經驗의 壯丁 또는 未成年者를 使用하여 간신히 需要에 對處할 程度」였다.

以上과 같은 變化에 對應하여 重工業系에서는 새로운 生産技術에 對應할 수 있는 勞動者를 育成하기 위하여 既就業勞動者의 再訓練, 특히 見習職工의 技能養成을 目的으로 公的 職業教育施設等에 委託하였다. 한편으로 企業內養成施設을 設置하여 技術的 知識을 教育하는 方式도 널리 採用되었다. 이러한 委託教育方式을 試하게 되는데 대하여 提唱者인 手島精一氏는 다음과 같이 述懐하고 있다. 「職工은 家計困難하기 때문에 그 職業을 포기하고 學校에 通學하는 것은 至難하다. 따라서 補習夜學을 獎勵하여 工業에 必要한 專門學術을 익히게 하므로써 技術의 發達을 期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職工은 그 責任을 重要視하며 德義心을 養成하므로써 工業의 發展에 이바지하는 바 至大하다고 믿는다.」⁴³⁾ 이 경우 教育費用은 오직 企業에 의하여 負擔되었으며, 이렇게 企業의 勞動者에 대한 思情을 보여 勞動者의 企業 歸屬意識을 強化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委託教育方式 혹은 企業內養成施設을 통하여 勞動者의 質에도 하나의 變化가 생기게 되었다.

〈表 Ⅲ-1〉 學歷別生産年齡人口

(10,000人, %)

學歷 年次	不就學者	初等教育卒	中等教育卒	高等教育卒	生産年齡人口
1895	1,916 (84.1)	357 (15.6)	4 (0.2)	2 (0.1)	2,279 (100.0)
1905	1,396 (57.3)	1,015 (41.6)	21 (0.9)	5 (0.2)	2,437 (100.0)

資料：隅三谷喜男外 2名, 『日本資本主義と勞働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67, p. 82.

註：生産年齡人口는 15~54歲, 「不就學者」數는 生産年齡人口에서 學校卒業者를 제외한 것을 표시하고 있다.

表〈Ⅲ-1〉에 의하면 不就學者의 生産年齡人口가 1895(明治 25)년에는 80% 以上에 達하고 있으며, 初等教育을 修了한 者를 겨우 10%臺를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은 狀態였다. 그

43) [G], p. 229.

러나 10年後의 1905년에는 그 比率이 60% 未滿이며 初等教育率의 比重이 40%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中等教育以上の 卒業者가 극히 急增하였다는 點은 注目할 만하다.⁴⁴⁾

이러한 「教育의 普及에 따라 勞動者의 知識도 增進하여 그들 스스로 經濟上의 地位를 自覺하게 된」⁴⁵⁾ 것은 當然의 趨勢였으며 大工場일수록 이러한 教育을 받은 職工의 比率은 높았다. 「東洋經濟新報」가 露日戰爭後 스트라이크가 頻發한 첫째의 原因을 「教育의 普及에 着目한」⁴⁶⁾ 點은 當時의 事情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國民教育의 充實을 期한 結果 小學校의 義務教育이 延長되어 基礎的 學力은 向上 되었다. 이렇게 되자 勞動者의 熟練도 차츰 客觀化되어 手工的 性格은 後退하여 갔다. 또 勞動者의 企業歸屬意識을 強化하여 그 定着化를 도모한 結果 後述하는 것처럼 露日戰後 勞動者의 流動이 低下한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2. 直接的 管理體制에의 轉換

露日戰爭의 勃發에 의하여 速成을 要하는 作業이 增大하여 감에 따라 大企業에서는 請負 制를 廢止하여 「能率給制度」⁴⁷⁾를 採擇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親方勞動者에 의한 恣意的인 分配를 排除하여 勞動者에 대한 能率規制를 強化하였는데 이것이 有效하게 作動하여 가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管理上의 問題를 處理하는 管理機構의 整備와 管理者層의 充實이 必要하였다. 즉 從來와 같이 長年의 經驗을 基礎로 하는 職長에게 作業의 管理를 一任하는 것은 不適當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事務所에서 生産關係의 事務를 擔當하고 있던 下級技術者가 直接的 管理者로서 作業現場에 進出하자 일체의 權限을 손에 잡고 있던 職長이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橫山源之助는 露日戰爭後의 勞使關係의 變化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露日戰爭後 當時는 都下의 鐵工場에서는 在來의 親分(Boss)的 職工이 도처에서 霸權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今일에 이르러서는 砲兵工廠은 물론 一般의 鐵工場에서도 이 親分的 職工은 거의 볼 수 없다. 親分的 職工의 減少結果, 工場主와 職工과의 雇用關係도 從來와 같은 工場主對 親分的 職工對 職工에서 工場主對 職工이라는 二者의 關係로 되었다.」⁴⁸⁾

44) 日本에 있어서 教育制度는 明治 40(1907)년까지 小學校 4年의 義務制였는데, 그 普及率이 明治 24년에는 50%, 33년에는 80%를 넘어 同 40년에는 90%에 달하였다. 이러한 事情을 고려하여 明治 41(1908)년에는 義務教育은 6年으로 延長되었다. [J], p. 56 參照.

45) [G], p. 234.

46) [G], p. 234.

47)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

$$\text{加給額} = (\text{豫定時間} - \text{實就時間}) \times \frac{\text{實就時間}}{\text{豫定時間}} \times \frac{\text{請負工事を 시작한 날의 賃錢}}{10}. \quad [G], \text{ pp. 235} \sim 6$$

參照.

48) [Q] 第3卷, p. 12.

이러한 變化의 過程을 통하여 꽤 獨自的인 規制權限을 갖고 있는 職長을 媒介로 한 間接的 管理體制에서 職場管理者가 職長을 管理上的 補助者로 하면서 管理에 임하는 소위 直接的 管理體制에의 轉換이 행하여졌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露日戰爭以後 重工業과 大企業에서는 請負制度를 廢止하여 職場管理者에 의한 生産管理과 勞動條件의 規制를 強化하여 갔다. 이러한 經營基盤에 의한 生産過程支配의 強化에 의하여 비로소 露日戰後の 不況의 慢性化에 허덕이던 大企業, 특히 造船資本 등은 獨占的 地盤을 構築하여 겨우 金融資本化하고 있던 財閥의 一環으로서 상당한 利潤을 올렸으며 軍工廠等도 兵器生産의 自立化에 一步前進을 하게 되었다.⁴⁹⁾

3. 露日戰爭後의 大爭議와 그 背景

日本에 있어서의 工業化는 露日戰爭을 前後로 하여 獨占資本의 成立段階에 突入하자 특히 生産構造面에서 많은 變化를 招來하였다. 이런 餘波에 基因하여 勞使關係面에 있어서도 注目할 만한 變化가 일어났다. 그 最大의 契機가 된 것은 露日戰爭 直後에 頻發한 大規模의 勞動爭議로서 勞使關係의 轉換을 象徵하는 것이었다.

表 <Ⅲ-2>를 보면 1905年 露日戰爭의 終結과 同時에 시작된 스트라이크의 물결은 翌年 1906年에도 계속되어 1907년에 이르러서는 同盟罷業의 件數·參加人員에 있어서 第1次大戰前의 絶頂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이 一連의 爭議는 重工業, 특히 國家資本에 의한 軍工廠, 財閥資本에 의한 大造船所 및 大鑛山에서 集中的으로 發生하였다는 것이 特徵이다. 그 중에서 主要한 것을 살펴보면, 1906年 2月 石川島造船所, 8月 吳海軍工廠·東京砲兵工廠, 12月 大阪砲兵工廠, 1907年 2月 足尾銅山·三菱長崎造船所, 4月 浦賀船渠, 6月 別子銅山·橫須

<表 Ⅲ-2> 同盟罷業의 推移

年 次	件 數	參 加 人 員
1904	6	897
05	19	5,013
06	13	2,037
07	60	11,483
08	13	823
09	11	310
10	10	2,934
11	22	2,100
12	49	5,736
13	47	5,242

資料：勞働史料刊行委員會『日本勞働運動史料』第10卷，東京大學出版會，1959. pp. 440~1.

49) [G], p. 250.

賀軍工廠, 11月 大阪의 活版工等の 各 爭議가 있었다.⁵⁰⁾ 특히 1907年 2月の 足尾銅山과 6月の 別子銅山等の 경우는 暴動 때문에 山全體가 불바다化하여 警察에 의한 治安의 維持가 不可能하여 軍隊의 出動을 초래케 할 정도로 激烈하여 社會의 耳目을 集中시켰다.⁵¹⁾

이들 一連의 爭議는 그 대부분이 賃金引上을 主要한 要求事項으로 하고 있는 것이 共通된 特徵이다.⁵²⁾ 賃金要求가 爭議의 焦點으로 된 原因은 戰後의 物價騰貴와 租稅負擔의 增加로 收入이 減少한 데 있었다.⁵³⁾ 이러한 事情을 더욱 惡化시킨 것은 戰爭終息에 따른 殘業·夜勤手當의 減少, 事業의 縮少에 의하여 發生한 人員削減等이었다. 따라서 戰爭이 終息된 直後 造船所, 陸海軍工廠等の 軍需工場에 연달아 大規模의인 紛爭이 發生하였던 것이다. 이들 爭議는 이미 偶發的인 것이 아니며, 自然發生的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程度의 組織力을 갖게 되어 運動의 規模와 內容에 있어서 社會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 大企業은 後退할 수 없는 重大한 勞動問題에 直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4. 經營家族主義의 登場

以上の 分析에서 分명한 것처럼 露日戰後의 大爭議·大暴動이 續發한 것은 결코 偶然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生産力의 發展·勞動者의 質의 變化·管理體制의 近代化等, 獨占資本의 形成에 수반하는 諸變化와 直接 關聯하고 있었으며, 勞使關係의 危機는 여기서부터 發生하고 있었다. 더우기 戰後의 一連의 爭議가 自然發生的인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大日本 勞動至誠會라고 하는 抗夫組織이 活躍한 足尾銅山처럼 社會主義 運動과 關聯을 갖는 것으로 있었다. 이 社會主義 運動의 潮流에 露日戰後 一大 變化가 일어났다. 즉 運動方向을 물러싸고 議會政策을 主張하는 片山潛派와 直接行動論=無政府共產主義를 主張하는 幸徳秋水派로 分裂하여 内部抗爭이 激化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抗爭 속에서 前者가 勞動組合의 組織에 의한 地位의 改善을 호소하고, 後者가 直接行動의 準備로서의 勞動者의·團體的 行動을 煽動하는 등, 各各의 立場에서 勞動者 階級과의 結合을 圖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社會主義는 政府로서는 결코 容認할 수 없는 危險한 思想이었다. 이에 대하여 政府는 明治 41(1908)年 以後「抑壓」政策을 더욱 強化하여 그뒤에 明治 43년에는 社會主義者와 無政府主義者들을 일체 禁거하여 일체의 社會主義運動을 抹殺하여 버렸다. 以後 第1次 大戰에 이르기까지 本格的인 勞動運動은 存立의 餘地가 없는 「暗黒의 時代」를 맞게 되었다.⁵⁴⁾ 이러한 事態는 政府와 獨占大企業에 있어서 深刻한 問題였다. 이에 대한 活路로서

50) [Q] 2 pp. 90~106.

51) [E], pp. 71~6.

52) [Q] 第2卷 pp. 90~106.

53) [E], p. 67.

54) [E], p. 90.

취한 政策이 傳統的인 勞使關係의 再編成, 즉 主從關係를 家族關係로 再編하는 것이었다. 隅谷三喜男教授에 의하면 「從來의 主從關係의 情誼論은 主從의 上下的인 社會關係에 力點을 두었는데 대하여 지금은 父子의 情誼를 根底로 하는 家族主義가 強調되어지게끔 되었다.」⁵⁵⁾ 예를 들면 明治 39(1906)년에 主要鐵道의 大部分을 國有化하여 大世帯로 된 鐵道院의 總裁 後藤新平은 「鐵道從業員의 家族主義生活를 實行하여 信義를 존중하고 愛情을 中心으로 信愛主義를 徹底히 한다.」⁵⁶⁾는 것을 從業員管理의 基本方針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 時點에 있어서의 經營家族主義에의 再編은 단지 家族主義의 論理와 倫理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政府와 獨占大企業에 의하여 家族主義의 物質的 基盤이 形成되었다는 點이다. 그 代表的인 施策은 共濟制度를 中心으로 하는 社宅制度, 退職金制度等 企業의 福利政策을 들 수 있다. 日本에 있어서 明治 30(1897)年代에 이미 共濟活動이 있었지만 그 中心의인 活動은 賃金勞動者의 生活의 不安定을 解決하는 데 두어졌었기 때문에 勞動者의 生活過程에서 생기는 疾病, 傷害, 災害, 死亡, 老年 等の 諸問題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劃期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07(明治 40)年 5월에 實施된 鐵道廳 從業員 共濟組合의 出現이라 할 수 있다. 獨逸의 制度를 모델로 한 이 共濟組合은 職工이 賃金의 백분의 3, 政府가 백분 2를 出資하여 사망, 부상 및 養老에 대하여 救濟金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⁵⁷⁾

〈表 Ⅲ-3〉 共濟組合設立狀況

	1890~1906	1907~10	1911~14	1915~17
設立組合數	46	54	111	175
同上 1年當	2.7	13.5	27.8	53.5

資料: 隅谷三喜男『日本勞働運動史』, 有信堂, 1974, p. 81.

上記의 〈表 Ⅲ-3〉에서 알 수 있듯이 共濟制度는 1907年 以後 重要な 勞動政策으로서 企業間에 急速히 普及하게 되었다. 共濟制度가 이처럼 急速히 增加한 이유는 그것이 勞動者의 生活上의 要求와 合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形態가 使用者側의 創案에 의하여 形成되었다는 것은 資本의 家族主義의 勞務政策의 基調로서 큰 意義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共濟制度와 함께 이 時期에 獨占大企業의 勞使關係安定策으로서 機能한 또 하나의 制度는 前述한 것처럼 直接 企業의 손에 의한 職工養成이었다. 그런데 이 制度가

55) [E], p. 79.

56) [E], p. 79.

57) [Q] 第3卷 p. 139.

처음부터 直接 勞使關係의 安定策으로 意圖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注意를 要한다. 露日戰爭을 契機로 急速히 發達한 獨占大企業은 勞働者의 不足과 새로운 生産技術의 變化에 對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狀況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써 出發한 職工養成은 처음에는 주로 職工學校等의 公共機關에 대한 委託方式이었으나 第1次大戰을 前後하여서는 企業內에서 養成하는 方向을 취하게 된 점도 아울러 重視할 需要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企業內에 溫情的 家族主義關係가 形成되었는데 그것은 政府의 勞動政策과도 깊게 結付되어 있었다.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1900年代의 勞動政策의 中心은 權力에 의한 彈壓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問題가 處理될 수 없었던 점에 露日戰後 勞動問題의 重大함이 潛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解決策으로써 構成되어진 것이 家族主義로의 再編이었다. 이 經營家族主義에 對應하는 政府의 勞動政策이 1911(明治 44)년에 成立을 보게 된 「工場法」이었다.

이러한 一連의 勞動政策이 急速히 普及되어지자, 1911年 以後부터 第1次大戰開始까지 勞動移動은 현저히 減少하여 勞使關係는 相對的으로 安定化되어 갔다.

IV. 結 論

以上の 考察을 通하여 알 수 있듯이 露日戰爭을 契機로 發生한 大工場·大鑛山에서의 爭議·暴動은 단적으로 勞働者側의 意識을 잘 反映하는 「行態의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生産力의 發展에 따른 勞動力構造의 變化, 賃勞働者의 質의 變化에 따른 意識의 向上, 管理體制의 合理化過程에서 생긴 矛盾에 의한 反抗等, 獨占資本의 形成에 수반하는 諸變化에 對應하여 勞働者는 行動을 취하였다. 특히 社會主義運動과의 關聯은 政府·獨占大企業에 있어서 深刻한 問題였다. 여기에 活路로써 模索한 것이 「主從關係」를 「家族關係」으로 再編하는 것이었다. 換言하면 이데오로기로서의 經營家族主義와 企業의 職工養成制 및 福利政策이라는 制度 즉 原理와 制度와의 內面的 統一에 의하여 비로소 勞使關係는 安定化되고 勤續은 長期化되어 갔다. 그런데 이 經營家族主義의 性格에 대하여 많은 論難이 있는데 이 點에 關해서 간단히 檢討하고자 한다.

間宏教授에 의하면 「家」制度가 무엇보다 强하게 행하여지고 있던 商家며 豪農層出身인 資本家 혹은 經營者 自身이 갖고 있던 生活態度가 經營의 基本方針으로서의 經營家族主義를 창조하게 되었다고 한다.⁵⁸⁾ 한편, 隅各三喜男教授는 露日戰爭後의 時期를 「主從關係의 情誼論」에서 「家族의 情誼論」에의 轉換期로서 把握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⁵⁹⁾

58) [H], p. 43

以上の見解를 한파디로 要約하면 經營家族主義가 日本의 傳統的 所産인가 혹은 아닌가 가 問題로 되고 있다. 따라서 問題는 「家族主義」가 언제 日本의 經營社會에 침투하였는가를 추적함으로써 解明될 수 있다고 본다.

川島武宣氏에 의하면 「家族制度 이바올로거」로 불리워지는 것이 明治以後 대개 三段의 劃期 즉 露日戰爭・第1次大戦・昭和恐慌을 旋回點으로 반복하여 「再編」되면서 展開되어 왔다. 그리고 그 過程에 있어서 그의 그때의 要請에 따른 內容的 變化를 초대하면서 權力主義的 支配의 強化와는 반대로 「封建的」性格에서 차츰 「보다 庶民的」인 性格으로 推移되어지고 있다.⁶⁰⁾ 이러한 사실을 아울러 생각하면 日本에 있어서의 經營家族主義는 日本의 傳統的 社會의 所産이라기보다 露日戰爭後 勞使關係의 動搖속에서 生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示唆를 얻을 수 있다. 위의 論理가 肯定的이라면 日本企業에 있어서 勞動者의 定着性의 原因은 日本의 文化的 傳統이라든가 國民性에서 由來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産業化의 諸條件에 의하여 決定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 [A] 大河內一男『勞使關係論の史的發展』, 有斐閣, 1972.
- [B] 木元進一郎編『勞史關係論』, 日本評論社, 1976.
- [C] 隅谷三喜男『日本の勞働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73.
- [D] 隅谷三喜男編『日本の勞使關係』, 日本評論社, 1974.
- [E] 隅谷三喜男『日本勞働運動史』, 有信堂, 1974.
- [F] 小林謙一外 2名『日本資本主義と勞働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77.
- [G] 兵藤劍『日本における勞使關係の展開』, 東京大學出版會, 1971.
- [H] 間宏『日本の勞務管理史研究』, グイヤモンド社, 1964.
- [I] 日本史研究會『日本史研究』131卷, 1970.
- [J] 隅谷三喜男『日本賃勞働の史的 研究』, 御茶の水書房, 1978.
- [K] 安藤貞雄『日本資本主義の歩み』, 講談社, 昭和 52年.
- [L] 鈴木英雄外 3名『概説日本史』, 有斐閣, 昭和 53年.
- [M] 山田盛太郎『日本資本主義分析』, 岩波書店, 1934.
- [N] 後藤靖外 2名『日本資本主義發展史』, 有斐閣, 昭和 54年.
- [O] 大河內一男編『日本の勞働組合』, 東洋經濟新報社, 昭和 29年.
- [P] 有澤廣巳『日本産業百年史』, 日本經濟史, 昭和 42年.
- [Q] 勞働運動史料刊行委員會『日本勞働運動史料』第1, 2, 3, 10卷, 東京大學出版會.
- [R] 經濟協力開發機構『OECD對日勞働報告書』, 日本勞働協會, 昭和 47年.
- [S] 東京大學經濟學會『經濟學論集』第31卷 第4號, 東京大學出版會.
- [T] 隅谷三喜男編『日本勞使關係史論』, 東京大學出版會, 1977.

59) [G], p. 296.

60) 川島武宣『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家族制度』, 岩波書店 1957, pp. 44~5.